



▲ 카카오프렌즈 친구 추가하러 가기

그린피스와 친구를 맺어주세요!

그린피스를 카카오프렌즈 친구에 추가해 보세요.
그린피스 챗봇 '그린이'를 통해 다양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를 검색하시거나,
QR 코드를 통해 그린피스와 카카오프렌즈 친구를 맺어 주세요.

COVER STORY

브라질 아마존 해안을 향해 중인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위트니스.

위트니스는 산호초와 광대한 맹그로브 등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아마존의 아마파와 파라 해안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석유 개발이 아마존 해안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아마존 해안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표지 사진 © Enrico Marone / Greenpeace

- ☎ 02-3144-1997
- ✉ sukr@greenpeace.org
- 🏠 www.greenpeace.org/korea
- 📘 facebook.com/greenpeacekorea
- 📷 @greenpeacekorea
- 📺 @greenpeacekorea
- 🔍 검색창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세요!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공기를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2023

연차보고서

The Impact



CONTENTS

- 02 그린피스의 영향력
- 04 인사말
- 06 미션
- 08 환경감시선
- 10 캠페인 성과
- 26 임팩트 스토리
- 30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 supporter.kr@greenpeace.org
☎ +82 (2) 3144 1997

홍콩

10/F, Stelux House, 698 Prince Edward Road East,
San Po Kong, Kowloon, Hong Kong
☎ donor.services.hk@greenpeace.org
☎ +852 2854 8300

베이징

Liangdian Creatie Park Room 201,
Dongsishitiao 94,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07
☎ greenpeace.cn@greenpeace.org
☎ +86 (0)10 6554 6931

타이베이

No.109, Sec. 1, Chongqing S. Rd.,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10045, Taiwan

일본

Tsao Hibiya 12F, 3-3-13 Shinbashi, Minato-ku, Tokyo
105-0004, Japan
☎ +81(3) 5338 9800

2023 연차 보고서 통권 10호

발행일 2024년 8월 16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디자인수다

그린피스의 영향력

전 세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다

- 1 유엔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
- 2 독일, 100% 재생에너지 목표로 탈원전 달성
- 3 글로벌 석유 유출 긴급 대응: 예멘
- 4 HD현대건설기계, 아마존 불법 채굴 현장 중장비 판매 중단
- 5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2030 탄소중립 목표 발표
- 6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시스템 주도
- 7 TSMC, 탄소 감축 노력 강화
- 8 그린피스와 네이처앤유스(Nature and Youth), 노르웨이에서 승소
- 9 태국 환경부 오염물질 모니터링
- 10 심해채굴에 반대한 24개국의 수백만 명

그린피스와 함께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바다부터 울창한 열대우림까지, 그린피스는 환경 보호의 최전선에서 지구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향한 이정표



16일 만에
아마존 숲을 지켜내다

4 한국 · 숲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브라질사무소의 협력으로 캠페인 16일 만에 HD현대건설기계는 아마존 불법 채굴 현장에서 중장비 판매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기업을 압박해, 원주민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 독일 · 기후
2023년 4월, 독일은 남아있던 마지막 세 곳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수십 년 동안 독일에서 탈원전 캠페인을 주도해왔습니다. 독일은 2035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00만 배럴의
석유 유출로부터 바다를 지키다

3 예멘 홍해 연안 · 기후/해양
지난 수년간 미뤄지고 있던, 예멘 해안의 석어가는 유조선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기름을 옮기는 작업이 그린피스와 여러 단체의 요청으로 마침내 2023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1 전 세계 · 해양
20년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마침내 유엔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에 합의했습니다. 그린피스는 2005년 전 세계 해양 보호를 위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해양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조약은 해양 보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5 중국 · 기후
그린피스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게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바이트댄스가 그린피스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6 동아시아 · 플라스틱
그린피스는 동아시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재사용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홍콩의 커피숍 35곳 이상과 협력하여 컵 대여 및 반납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사용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대만 · 기후
그린피스는 지난 2년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TSMC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로 TSMC는 2023년 9월, 예정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노르웨이 · 기후
그린피스와 청년단체 네이처앤유스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북극 세 곳의 유전 및 가스전 승인을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결로 북극을 파괴하는 석유 시추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9 태국 · 기후
태국의 중앙 법원이 대기 오염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환경부는 태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0 해양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시민과 37개 금융 기관, 750명이 넘는 과학자 및 수산업계가 그린피스와 함께 심해 채굴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2023년 국제해저지구에서는 채굴 업계가 심해 채굴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함께일 때 더욱 커집니다

그린피스 후원자님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구를 위한 후원자님의 한결같은 지원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은 동아시아에서 만드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2023년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의 힘으로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든든한 지원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강력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기후행동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우리는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연대 활동 강화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개인,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업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Nam Boonbin
남부원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 의장



Jui-pyeong
쑤이평정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 Tomás Munita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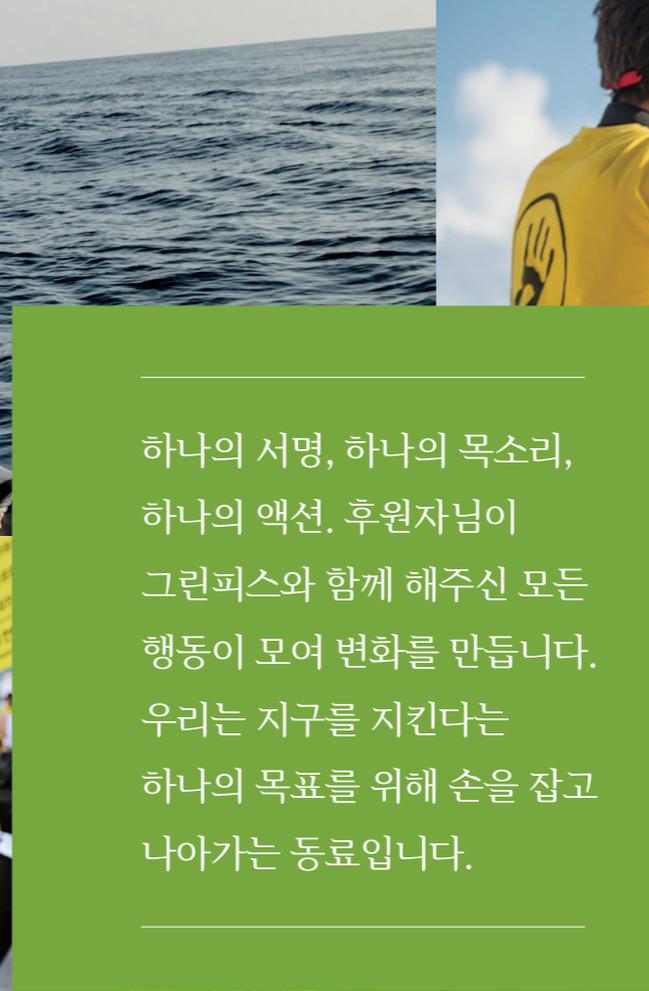
© Greenpeace / Yejin Kim



© Roelton Thodé / Greenpeace



© Greenpeace



하나의 서명,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액션. 후원자님이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모든
행동이 모여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고
나아가는 동료입니다.



© Harriet Spark / Grumpy Turtle Film / Greenpeace



© Greenpeace



© Will Rose / Greenpeace



© Greenpeace / Adomilson Oliv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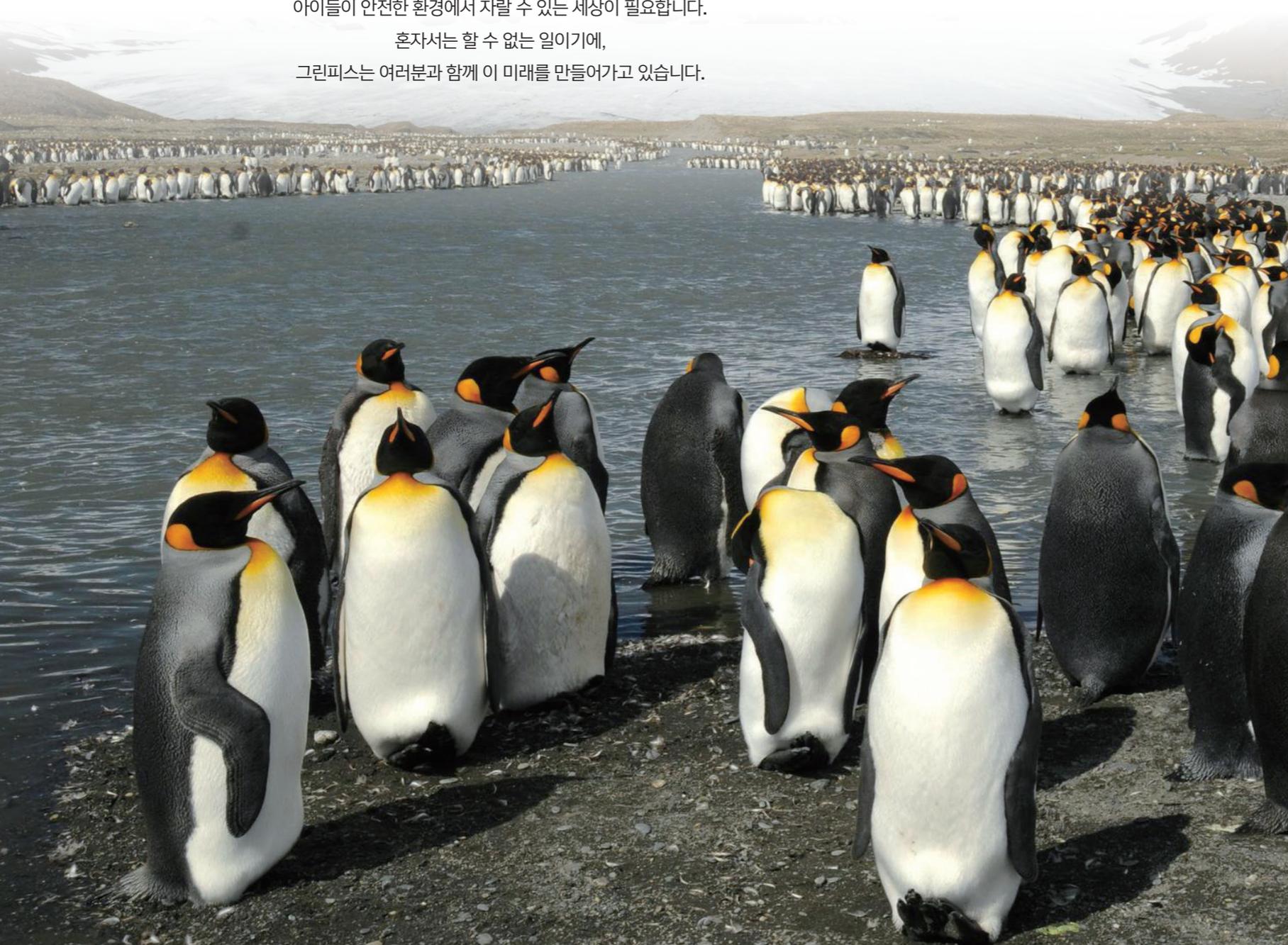
© Seddik Boubaker / iWatch



© Tim Aubry / Greenpeace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찬 숲과 바다가 필요합니다.
계곡물처럼 깨끗한 에너지가 흐르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린피스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린피스일까요?

그린피스의 목적은 인간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1971년 개소 이래 지구를 보호하고,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만든 모든 변화는 목표를 향한 행동과 꾸준한 노력, 후원자님의 신뢰가 모여 완성된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목표



1 화석 연료 사용 중단

그린피스는 화석 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멈추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자연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2030년까지 공해 30% 보호

그린피스는 바다 보호를 위해 유엔과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하는 해양보호 구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75% 이상 감축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회용 플라스틱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2030년까지 농업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 50% 감축

그린피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2030년까지 농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20년 수준 대비 50% 감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2023 하이라이트

‘배’는 그린피스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린피스의 첫 시작도, 태평양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 작은 어선을 타고 항해를 떠난 것이었고요. 한국 교과서에도 그린피스의 액티비스트들이 배를 타고 포경선과 맞서는 사진이 실려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시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린피스의 ‘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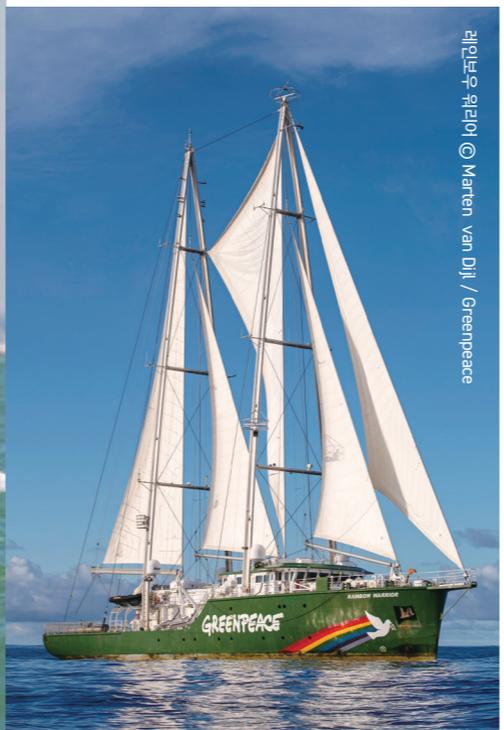
위트니스 © Marten van Dijk / Greenpeace

‘환경감시선’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환경 파괴의 현장을 폭로하고,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바다에서 벌어지는 멋진 액션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재 총 3척의 환경감시선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감시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합니다!

레인보우 워리어

한국에도 방문한 적 있는 레인보우 워리어 호는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배인데요. 작년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고 캠페인을 알렸습니다. 5월에는 호주 알버니를 방문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드사이드의 화석 연료 개발을 막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필리핀을 방문해,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또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들에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 © Marten van Dijk / Greenpeace



아틱 선라이즈 © Christian Astlund / Greenpeace

아틱 선라이즈

작년 2월, 석유기업 쉘의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을 막기 위해 액티비스트들과 함께 비폭력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심해 채굴 활성화에 대해 논하는 국제해저기구 (ISA)의 제28차 회의 기간에 맞춰 자메이카로 향했습니다. 아틱 선라이즈호가 도착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심해 채굴을 막기 위한 여론이 커졌습니다. 또한 멕시코 걸프 해안의 산호초 지대를 파괴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을 막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8월에는 태평양에 위치한 클라리온-클리퍼튼 해역에서 심해 채굴 산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고래와 돌고래에 대한 과학 조사를 진행했으며, 11월에는 또다시 2주 동안 액티비스트들과 함께 심해 채굴에 반대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위트니스

그린피스의 새로운 배, 위트니스는 3월 그린피스 안디노 사무소와 함께 연어 양식업이 파타고니아 피오르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5월에는 칠레를 방문해 연안 석유 개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밝혔습니다. 10월 초에는 아르헨티나 바다에서 거대한 소음으로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는 탄성파 석유 탐사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선원들과 액티비스트들은 탄성파 선박 앞에 9미터 높이의 배너를 설치하고 석유 탐사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과 12월에는, 몬테비데오의 레푸블리카 대학교의 과학자들과 함께 우루과이 해안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이 한국에 찾아옵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11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서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되시나요? 환경감시선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환경감시선을 타고 항해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활동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피스 후원자 뉴스레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린피스의 영향력은 후원자님의 목소리로 만듭니다



2023년 그린피스는 국내에서, 또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보다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우리의 바다와 숲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팀과 힘을 합쳤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후원자님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 Greenpeace / Simon Murtagh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그린피스 활동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기후위기. 2023년에도 그린피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 개인 제트기를 금지한 암스테르담 공항

그린피스는 스키폴 공항의 개인 제트기와 항공 오염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개인 제트기가 일반 상업용 비행기보다 최대 14배, 기차보다는 50배나 더 많은 지구 온난화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린피스와 수백 명의 활동가들은 공항에서 개인 제트기를 둘러싸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펼치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개인 제트기 금지에 동의하는 청원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스키폴 공항은 2025년부터 개인 제트기와 소형 비즈니스 비행기의 활주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 틱톡도 친환경적으로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IT기업 바이트댄스가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그린피스 베이징 사무소는 2017년부터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2020년에 100% RE를 약속한 기업은 한 군데뿐이었지만 2022년 중반에는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이트댄스와 같은 영향력 있는 기업이 변화에 동참하면서, 더 많은 IT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3 독일, 마지막 원전 문을 닫다

4월 15일, 독일이 운영 중인 3기의 원자로 가동을 모두 멈추고 재생에너지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는 1980년에 문을 열어 지난 40년간 탈원전 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탈원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22년 기준 독일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가 넘습니다. 2000년에는 고작 7%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탈원전 정책 덕분입니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4 우크라이나에 피어난 희망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환경단체 및 자선단체들과 힘을 합쳐, 폭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이우 근방의 호렌카 병원 재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땅속의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히트펌프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병원에 설치해,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탄소배출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호렌카 병원은 전면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시민들을 위해 계속 운영됐지만, 포탄이 미당에 떨어지면서 건물이 부서지고 난방 시스템이 망가져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난방 시스템은 난방 비용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병원에 필요한 에너지의 40~60%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세대 간 기후 불평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

2023년 그린피스는 세대 간 기후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세대 간 불공정하게 분배된 탄소예산(탄소 감축 책임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힘썼습니다. 마침내, 그린피스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법 통과

2023년 초,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그린뉴딜시민행동'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 입법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그린피스가 지속적으로 조명한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이란?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청년과 함께 만든 변화

청년단체들과 함께 전국 5개 시, 도를 찾아가 기후정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을 조사를 진행하고, 국회 앞에서 탄소의 짐 퍼포먼스를 펼쳐 청년 세대에게 쏠린 탄소 감축 책임 문제를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결국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권은 그린피스의 요구대로 세대 간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탄소예산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탄소예산이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하는 탄소배출 한도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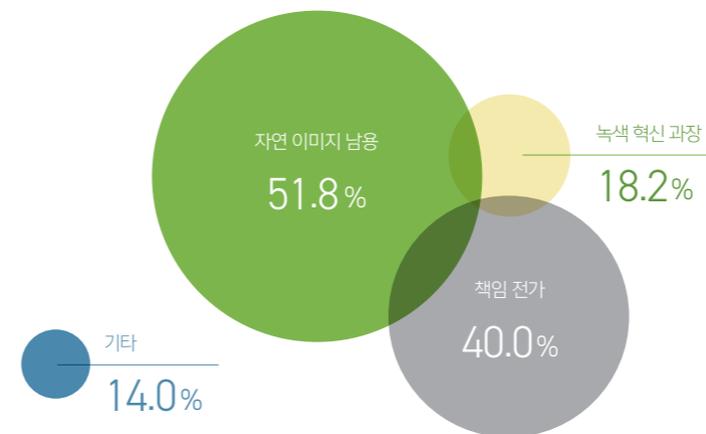
“친환경 제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시죠?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막상 알고 보면 친환경이 아닌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그린워싱 감시단

그린피스는 497명의 시민들과 함께 소셜미디어 속 그린워싱을 찾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년간 국내 대기업(공정위 선정 대기업집단 76곳의 2,866개 계열사)들이 운영 중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 전체를 조사했는데, 제품의 성능과는 무관하게 브랜드나 제품에 친환경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자연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친환경, 저탄소 기술 기여 등을 지나치게 강조했는지 등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린워싱의 유형



기후공시 헌법소원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기후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고 기후위기 대응도 늦춰지게 됩니다. EU나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기후 정보를 공개하도록 구속력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린피스는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167명의 시민 청구인들과 함께 9월 20일, 기후공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 발의

안타깝게도 그린피스와 시민들의 헌법소원은 사법부의 후진적인 기후 인식으로 각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포기하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와 함께 기후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14일, 김성주 의원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청구인단 여러분의 진심을 이어받아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 로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내일을 위한,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엔 국경이 없습니다.



전쟁의 불모가 된 원자력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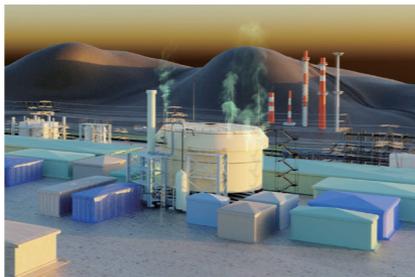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가 전쟁에서 파괴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년 전 초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심각한 방사성 오염에 이어 또 다른 원전 사고 가능성이 우크라이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의 가능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우크라이나를 횡단하며 방사선 현지 조사와 방사능 센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방사선 위협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그린피스는 2011년부터 과학적 조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2023년엔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 위원회 소속 핵 물리학자와 함께 도쿄전력의 오염수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국 사회에 폭로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반 세기 동안 발표된 약 7천 5백 건의 삼중수소 연구를 전량 분석하고, 미량의 삼중수소도 내부 피폭물로 축적될 경우 동물과 사람에게 유전학적 영향을 미친다는 학술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5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352,021명 시민들의 서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내 원전 부실시공 최초 폭로

그린피스는 국내 원전 13기에 부적합한 부품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원전의 기기를 안전하게 고정하는 장치인 앵커볼트가 내진 성능이 없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국가조사단 조사를 통해 고리와 월성 원전 인근에는 약 7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 많은 원전 주요 건물에 내진 성능이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앵커볼트 수천 개가 설치됐다는 점입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원자력 기관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하며 불충분한 원전 안전 대응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볼트 사고 시뮬레이션

* 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탄소 질주에 브레이크를!

그린피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 공개

2021년, 2022년에 이어 <2023 글로벌 15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지, 자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등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전 세계 15개 자동차 회사의 '탈탄소화' 노력을 평가했는데요. 1위가 100점 만점에 41.1점일 정도로 자동차 회사들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는 중하위권인 9위(20.5점)에 머물렀습니다.

현대차에 기후위기 대응 요구



2023년 11월 29일,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그린피스는 '탄소 질주, 이제 멈춰라'는 문구가 새겨진 지름 2.5미터 크기의 거대한 타이어를 세우고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린피스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환경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거대한 자동차, 더 큰 위기>를 발표했습니다. SUV는 일반 자동차보다 주행 시 1대당 4.6톤의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키는데요. 현대차의 2022년 SUV 판매 비율은 약 53%로, 세계 상위 5개 제조사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와 활동은 국내 언론은 물론 프랑스 등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친환경 이동'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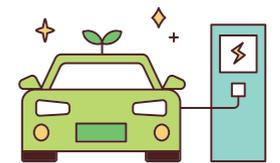
그린피스는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 '오작교(오늘의 작은 교통)'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또, 가을을 맞아 여행 및 운동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해 인천 장봉도, 대관령, 춘천을 차 없이 즐겁게 여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요

그린피스는 전기차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해 전기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자동차 및 자전거 공유 등을 하나로 잇는 통합 교통 서비스(MaaS)가 활성화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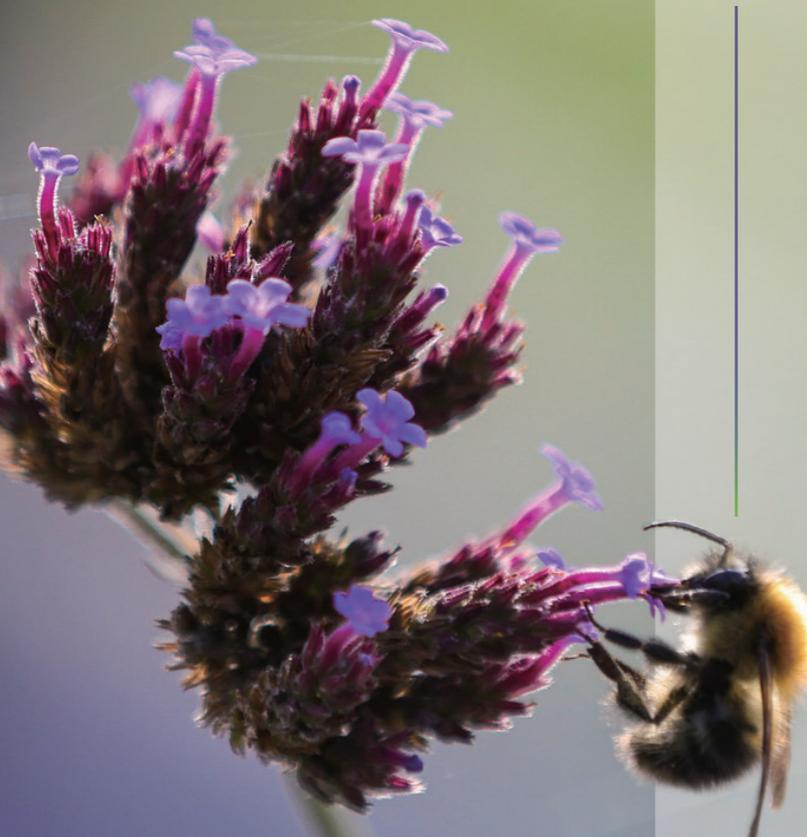
전기차에 대한 오해 Q&A

- Q.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A.** 전기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판매하는 자동차 중 94%가 내연기관차입니다.
- Q.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 차다?**
- A.**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경유차, 휘발유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 20%밖에 절감되지 않습니다.
- Q. 전기 SUV는 친환경적이다?**
- A.** SUV는 제조 과정에서 더 많은 철강을 사용하고 소형차에 비해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결코 환경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지켜요

다양한 생명이 뛰노는 지구를 위해,
그린피스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약속,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2022년,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산하 196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전 지구적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들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캠페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꿀벌을 지켜라!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한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만 사라진 꿀벌은 2022년에 78억 마리, 2023년에는 무려 141억 마리입니다. 겨울만 지나면 벌통 안이 텅텅 비는데, 원인도 해결책도 찾기 어려웠죠.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양봉협회와 함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꿀벌 70%가 수분을 의존하고 있는 아까시나무의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밀원 식물이 필요합니다.

꿀벌을 위해 다양한 꽃과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전국 98개 초중고교에 꽃밭을 조성하는 '허니비 스쿨 프로젝트'로 도심 곳곳에 꿀벌의 급식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윤여정 님과 함께 '꿀벌식당'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Elizabeth Dalziel / Greenpeace



© Christian Braga / Greenpeace



© Tomáš Czokovits / Greenpeace

HYUNDAI 중장비 아마존 파괴 동원 중

주최: 그린피스 GREENPEACE



© Greenpeace / Yeo-sun Park

아마존을 위한 승리

지구 최대의 생태 보고, 아마존 원주민 부족의 아이 570명이 불법 금 채굴로 수면에 노출되거나 말라리아, 설사, 기형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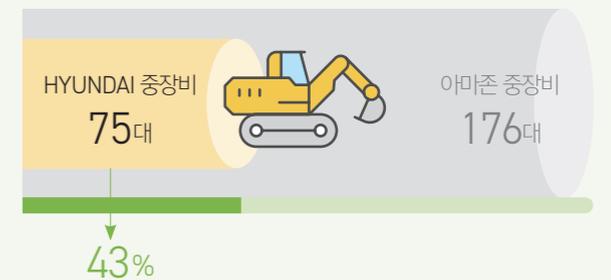
그린피스는 지난 약 3년 동안 아마존 금 채굴의 95%가 집중된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항공 촬영을 통해 채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채굴이 법으로 금지된 원주민 보호구역이지만, 금이 대량 매장된 사실이 알려지며 범죄 조직까지 가담해 불법 금 채굴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중장비는 모두 176대로 이 가운데 75대가 HD현대건설기계(HCE)의 중장비로 확인됐습니다. HYUNDAI 중장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점유율은 43%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프레스센터에서 'HYUNDAI 중장비 아마존 파괴 동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금 채굴과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원주민 피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아마존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는 중장비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HD현대건설기계는 아마존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아마존 파괴에 동원되는 중장비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아마존 채굴 현장 중장비 중 HYUNDAI 중장비 점유율



해양보호구역을 향해 한 발자국 앞으로!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와 함께 2023년은 해양보호를 향해 밝고 희망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십 년 간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내온 전 세계 시민들과 그린피스와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커다란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 Paul Hilton / Greenpeace



© Brooke Pyke / Greenpeace



© Greenpeace / Lewis Burnett

© Alex Westover / Greenpeace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

2023년 3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해양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글로벌 해양조약이 합의된 것입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2005년부터 약 20년 간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글로벌 해양조약의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 Greenpeace / Sungwoo Lee

30x30 메시지와 함께 바다를 헤엄치는 해양 생물들의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은 '마린보이' 박태환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맡았습니다.

정부를 바꾸는 시민의 힘



© Greenpeace

원양어업 강국 중 하나였던 한국 정부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회의 초기 단계에서는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역시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피스의 오랜 캠페인 결과 한국 정부는 2023년 10월, 미국과 유럽연합, 독일 등에 이어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한 83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해양보호 영상 상영회

2023년 2월 15일, 유엔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정부 간 비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영상 상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높이 5m, 폭 9m 크기의 거대한 스크린에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

9월에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우리 바다가 처해 있는 위협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30x30)하기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300여 명의 후원자님들이 영문 보고서의 국문본 발간을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해양보호 애니메이션 공개



© Greenpeace

그린피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바다에서 보내온 메시지>는 2분 길이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세 마리의 해양 생물이 바다에 들이닥친 위협을 피해 해양보호구역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사이먼 페그, 제인 폰다, 카밀라 카베요 등이 주인공 고래와 날치, 장어 역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 Ben Sarten / Greenpeace

플라스틱 오염 위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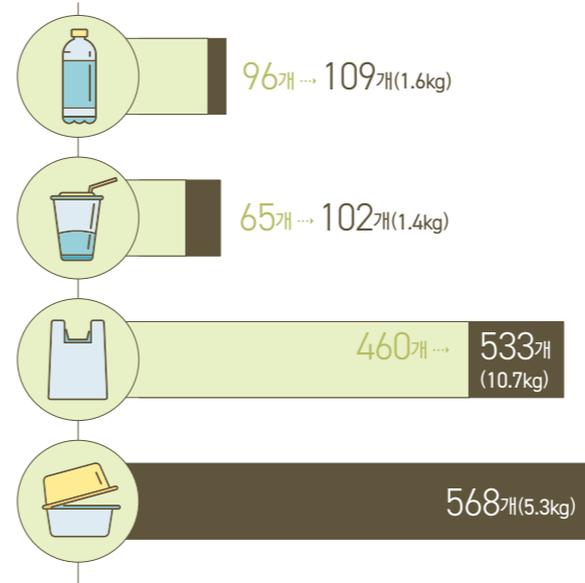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그린피스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협약에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최소 75% 절감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동시에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총 5회 개최되는데요. 그린피스는 협상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정부가 더 강력한 협약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실태 조사

그린피스는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 연구팀과 함께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추이와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향후 발생량 예측과 국제 사회의 동향 등을 분석 조사했습니다.

2020년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연구 결과 2020년 기준 생수 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등 대표적인 품목을 더하면 1인당 일 년에 약 19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 27%였습니다.

일회용 컵 vs 다회용 컵

그린피스는 홍콩과기대, 홍콩시립대 과학 연구팀과 협력해 한국, 대만,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 4개 국가의 재사용 컵 대어 및 반환 시스템을 조사해 보고서 <재사용이 미래다>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컵 대어 및 반환 시스템이 일회용 컵보다 환경친화적이며, 13개 환경 영향 항목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재사용 및 반환 시스템은 동아시아 도시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째 플록조사, 최고의 쓰레기 왕은?

2023년 플록조사에서는 2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해, 가장 많은 책임이 있고 재사용 시스템 전환이 가능한 음료 기업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Jung-geun Augustine Park / Greenpeace



© Greenpeace

일 년 열두 달, 시민참여 캠페인

그린피스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과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시민참여 캠페인 팀은 2023년도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월 ~ 8월

기후행동교사모임 좌담회 및 여름방학 워크숍 개최

2022년 조직한 '기후행동교사모임'의 선생님들과 함께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환경·기후변화 교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8월에는 여름방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교육과 함께 환경에 관한 관심을 나누고, 교사가 직접 체험하는 기후위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4월 ~ 8월



그린워싱 감시단 출범

소셜미디어 속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찾아내기 위해 '그린워싱 감시단'을 꾸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시민이 약 4개월 동안 399개의 기업, 60,021개의 게시물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29일, 그린워싱 실태 시민 조사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이후 기후공시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7월



플라스틱조사와 워크숍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하는 그린피스의 플라스틱조사가 열렸습니다. 무려 2,084명이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과 기업별 배출량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워크숍에는 700여 명이 모여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필요한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민의 경험과 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음료 기업들에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 12월

기후공시 헌법소원 제기 및 개정안 발의

그린피스의 그린워싱 감시단은 기업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공시 의무화 헌법소원'에 청구인단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지만, 그린피스는 기후공시 헌법소송 청구인단의 뜻을 이어 개정안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자원봉사자 연말 파티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방송인 자히드 후세인이 깜짝 손님으로 방음해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계획 중인 캠페인 팀도 있답니다.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이 생계, 주거, 일자리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해커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그린피스는 총선 이전 각 정당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해커톤에서 모인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이 제안서에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린피스는 논산 수해복구 자원봉사, 기후정의 행진 부스 이벤트, 정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 시민참여 캠페인 팀은 올해도 시민의 힘을 굳게 믿고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미디어와 온라인 캠페인 활동

그린피스는 2023년, 폭넓은 미디어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01 | 주요 언론에 소개된 그린피스 캠페인과 환경 이슈



탄소의 짐을 짊어진 청년 세대
그린피스는 2023년 6월, 한국의 불공정한 탄소예산 분배 문제를 지적하며 미래에 과도한 탄소의 짐을 지게 될 청년 세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환경의 날, 국회의원들의 기후위기 인식 대응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국회 앞에서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요 일간지와 방송 뉴스 등 영향력 있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존 불법 금 채굴
그린피스는 2023년 4월 'HD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아마존 파괴 동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불법 금 채굴에 국내 중장비 업체의 중장비가 사용되어 아마존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다수의 언론 매체가 참석했으며, 가디언지를 포함한 외신과 국내 주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플라스틱 몬스터 액션

그린피스는 2023년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신촌에 지름 8미터 크기의 거대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을 설치하고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다수의 언론 매체가 현장을 취재했으며, 유럽 및 중동 주요 매체를 포함 외신과 국내 주요 방송사와 지면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02 | 대중과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2023년, 그린피스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소셜미디어 이벤트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으로 여러분과 소통했습니다.



'오작교', 오늘의 작은 교통

9월 22일 '차 없는 날'을 맞아 그린피스는 한 달간 소셜미디어 이벤트 '오작교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의 모습과,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도 오작교 캠페인에 함께해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메시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

그린피스는 2023년, 기업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조사하는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조사단은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 사례를 소셜 미디어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린워싱을 감시하는 온라인 활동을 바탕으로 167명의 시민과 함께 기업의 투명한 기후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 청구서를 헌법 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온라인에서 '탄소예산'을 비롯한 세대 간 기후 불평등을 알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는 시민들과 청년 단체, 정치인이 직접 소통하는 '기후토크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에 가까운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했습니다.



03 | 인플루언서와 함께 만든 변화

배우 윤여정과 함께하는 꿀벌식당

그린피스는 벌을 비롯한 수분 매개체를 위해 건강한 생태계의 필요성을 알리는 생물다양성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벌의 먹이인 밀원식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배우 윤여정 님이 캠페인의 목소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평소 기후위기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배우 윤여정 님은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가 되는 벌을 살리자는 그린피스의 취지에 공감해 이번 캠페인 영상에 흔쾌히 재능기부로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다시 쓰는 리듬 (We Use Reuse!)' 뮤직비디오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다회용기가 더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팝 밴드 데이식스(DAY6) 멤버 도운과 퍼커서니스트 정술이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여 '다시 쓰는 리듬' 뮤직비디오에 재능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다회용기를 두드려 만든 경쾌한 타악기 사운드로 그린피스의 '용기내 캠페인'을 알리며 두 아티스트는 선한 영향력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14명의 셀럽, "플라스틱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2023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3번째 협상회의(INC3)가 11월 13일 케냐에서 개최된 가운데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배우 셸리나 제이틀리, 윌리엄 샤프너, 자넷 시에, 셸리나 제이드 등이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비디오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우 류준열, 배우 이정재가 참여했습니다.

임팩트 스토리

그린피스 후원자님, 반갑습니다

- 그린피스 후원자 행사 현장 스케치

2023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후원자님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차보고서 발간 기념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후원자님들과 만나고, 비건 쿠킹 클래스를 개최해 지구에도 좋고 맛도 좋은 채식 요리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연차보고서 발간 기념 행사

작년에 이어, 서울 사무소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그린피스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그린피스가 주력하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부사무총장과 김연하 해양 캠페이너,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캠페인 프로젝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린피스의 전략, 해양보호조약을 위한 여정까지,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비건 쿠킹 클래스

'채식을 하고 싶지만, 샐러드만 먹고 싶지 않아요!' '채식 요리는 맛있게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데요. 작년 6월, 그린피스는 좀 더 쉽게 채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을 위한 비건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는 비건 야키소바와 비건 떡볶이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함께 둘러앉아 먹으며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대한 캠페이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 함께 요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민의 힘(People Power)'은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움직이는 근본입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서 힘을 얻고, 개인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장다울 전문위원과 김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김지우 시민참여 캠페이너가 참석해 그린피스의 캠페인 방식을 실제 캠페인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장다울 전문위원은 그린피스 아마존 보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승리를 만들어낸 과정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기후행진을 위한 핸드 배너를 직접 만들어보았습니다.

참석해 주신 후원자님들께서는 "거대하게 느껴지지만 했던 캠페인 이야기가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다", "직접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다르다. 언론과 관련한 캠페인 이야기가 흥미로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들이 더 많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경’ 이야기는 ‘일상’의 이야기

EBS 다큐멘터리 PD 최평순 후원자님



© Greenpeace

13년간 EBS PD로 <하나뿐인 지구>, <이것이 야생이다>, 다큐프라임 <긴팔인간>, <인류세>, <여섯 번째 대멸종> 등 다양한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최평순 PD.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참여연구원이자 생명다양성재단의 이사로도 활동 중인, 그야말로 환경에 진심인 최평순 PD는 그린피스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아마존과 남대서양을 방문해 현장을 기록한 최평순 PD는 그린피스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현장을 방문하다

그린피스와 함께 아마존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데 화재 현장을 담을 수 있을까?’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틀 모두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파괴가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실감했어요. 7월이라 아마존에서 개간 목적으로도 방화를 금지하는 기간인데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화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불법 금 채굴 현장도 볼 수 있었는데요, 멀리서 보면 옥빛, 보라색 등 형형색색의 물이 예뻐 보였지만 그게 모두 파괴의 현장이라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존에서 그린피스 캠페이너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느꼈어요. 운송, 위성 전문가, 원주민 커뮤니케이션 담당, 사진작가, 언론 담당 등 전문적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었죠. 항공기를 보유한 것도 놀라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 감시를 할 수 없더라고요.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사명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나의 일’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의 주제도 바로 그 이야기에요. 왜 우리는 지구의 위기를 외면할까? 수많은 파괴의 현장에 찾아가 직접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후위기가 늦게 체감되는 안온한 위치에서 살다 보니 생계나 정치, 연예인 가십에도 밀려 기후위기 같은 중요한 문제가 핵심 아젠다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연무로 가득한 아마존 현장



그린피스와 함께 일하며

그린피스와 6년 동안 세 번이나 같이 일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불법 수출되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시 돌아온 평택항에서부터 불법 어업을 쫓던 남대서양, 이번 아마존까지. 항상 인간이 지구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백방으로 알려려고 노력하는 걸 보며 감동하곤 해요.

제가 남대서양을 다녀오고 나서 후원을 시작했는데, 정말 후원금이 잘 쓰이고 있다고 느꼈어요. 많은 후원자님들이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계속 응원하고 싶습니다.



© Greenpeace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후원자님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가 만든 다큐멘터리 속 인터뷰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 합니다. 오랜 세월 한 신사를 지켜온 신관인 미야자카 씨가 있습니다. 그는 수백년 간 매년 겨울이면 공공 얼어 '신의 발자국'이라 불리는 특별한 무늬가 얼음 위에 새겨지는 수와 호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랜 자연의 리듬이 깨져, 최근 몇 년간은 한겨울에도 호수가 아예 얼지 않았다고 말이죠. 기후위기의 선명한 단면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실 '겸손함'이야말로 그린피스 정신을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겸손한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후원자님과의 관계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는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린피스 동아시아와 서울 사무소의 후원금 수입과 사용 내역에 대해 아주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다른 동아시아 사무소에서 어떤 비슷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색다른 캠페인에서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흥미롭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신뢰와 헌신이 저희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45.3%(13,587원)



해양 보호
7.6%(2,281원)



산림 보호
7.8%(2,344원)



독성물질 제거 / 건강한 삶
3.6%(1,076원)



교차 캠페인
12.2%(3,649원)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홍보
11.7%(3,51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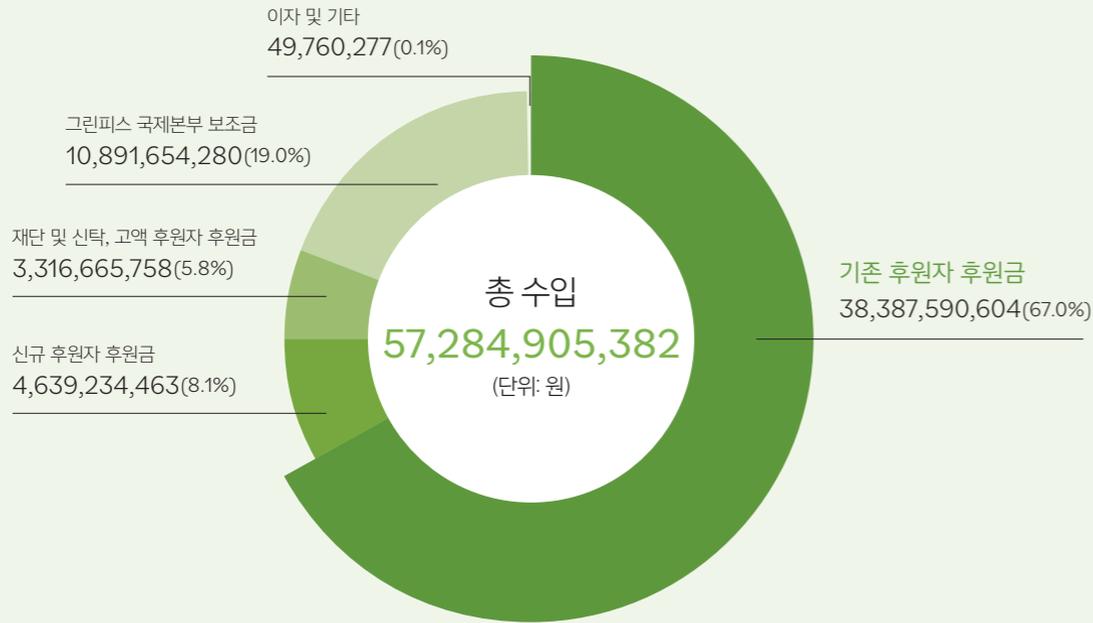


비폭력 직접행동, 자원봉사
4.4%(1,33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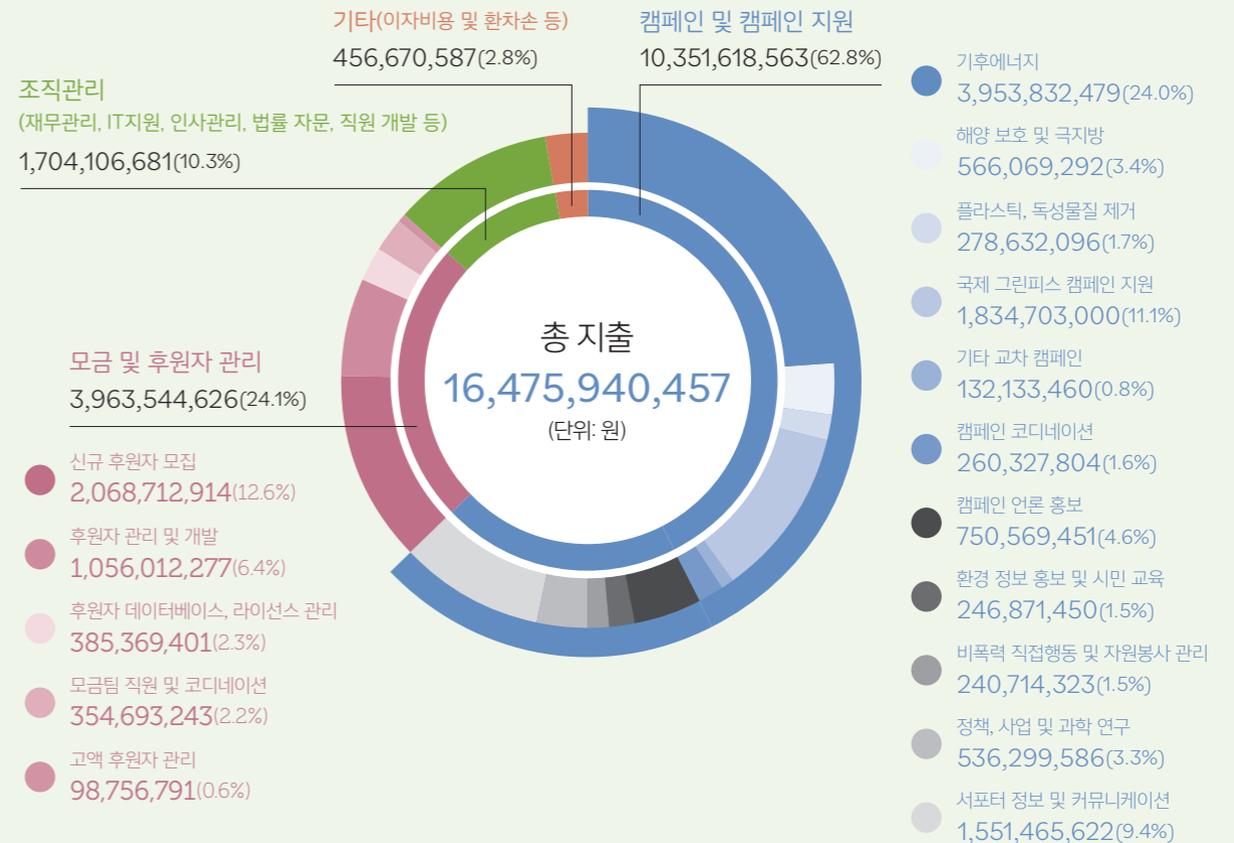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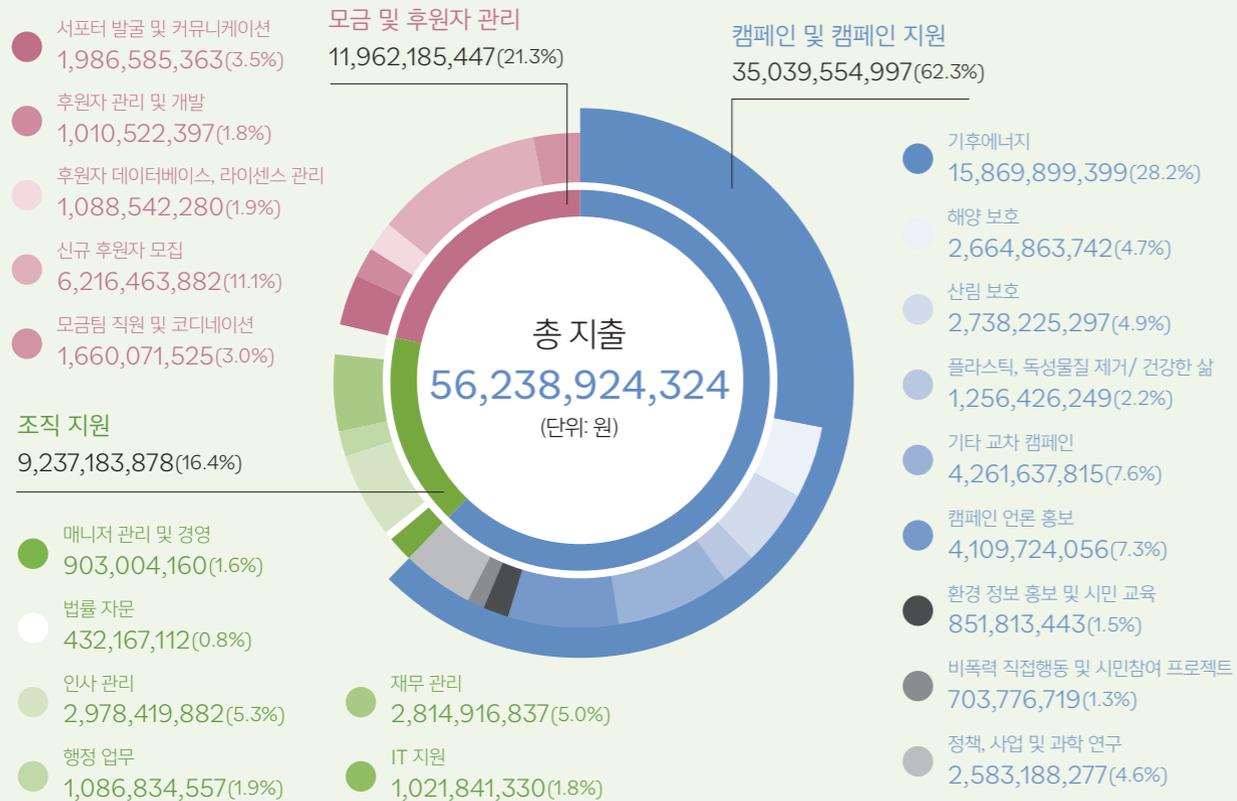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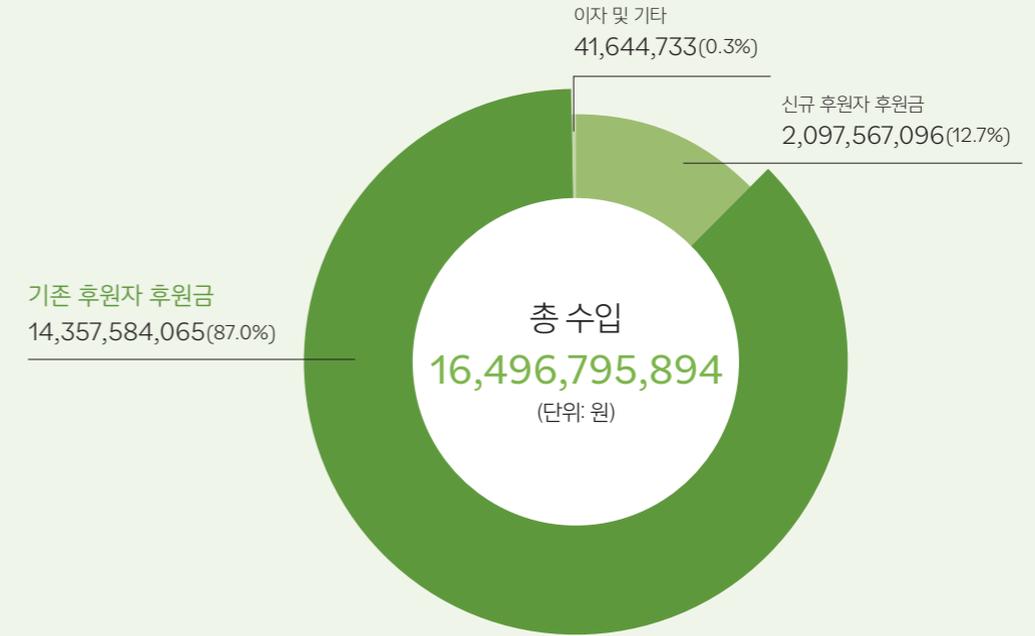


친환경 정책, 비즈니스 및 과학 연구
7.4%(2,212원)

2023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내역



2023 서울 사무소 수입 및 지출내역



후원금 상세 지출 비용



총액 15,869,899,399원

기후에너지

— 서울 사무소

1,662,110,207원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 탄소예산 문제 제기: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네 달만에 1만 개 이상의 청원을 모았습니다. 탄소예산을 알리는 유튜브 콘텐츠는 한 달 만에 5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 청년의 기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 등 청년의 목소리에 기반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탄소예산이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한국 IT 기업의 친환경 전환: 국내 거대 IT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두 개의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삼성전자에게 그린피스는 과감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기업의 그린워싱 대응: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워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기후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으로 한국에서 기후 정보 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탈원전:

-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30년간 연구한 티머시 무소 박사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가 인간과 생물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밝혀 대중에 알렸습니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 교육과 생물다양성:

- 국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연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 꿀벌 개체수 감소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꿀벌의 먹이인 밀원식물을 꿀벌 감소의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요구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특히 국내 초등학교에 밀원식물 씨앗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와 배우 윤여정과 함께하는 꿀벌식당 캠페인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린피스 타이베이 사무소는 현지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도시 기후 옹호 활동:

- 대만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하고, 주요 탄소 배출자인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 15개의 환경 단체와 협력하여 대만 경제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용량 전기 사용자에게 더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더 나은 재생가능에너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경제부는 그린피스의 권고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 오래 전통의 등불 축제에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탄소 중립 조명 설치미술을 선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축제의 전력 소비량을 강조하여 정부에 탄소 감축 목표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류 공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SMC 주주 총회에서 그린피스의 비폭력직접행동 후, TSMC는 2040년까지 RE100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조달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대통령 선거를 맞아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후 및 에너지 전환 권고안을 제안하고 기자 회견을 열었으며, 후보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캠페인 결과, 당선된 라이칭더 대통령과 다른 후보가 그린피스의 정책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 2020년 말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그린피스의 RE10X10 기업 친환경 전기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 주요 전력 사용

596,824,632원

도시 기후 및 에너지 솔루션

— 홍콩 사무소

318,593,909원

자, 다양한 산업의 상장 기업이 참여합니다. 모든 참여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면 2025년까지 최소 8,170만 kWh의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연간 4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 교육:

- 젊은 세대에게 기후 변화에 대해 교육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 2020년부터 그린 퓨처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 이상의 교육자와 협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와 환경 교육이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이 되도록 하고, 모든 학생이 기후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교사들에게 기후 교육 자료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저널을 넉 달마다 발간했습니다. 대만 전역에서 기후변화 강연과 교사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다섯 개 주요 도시에서 300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대만 정부가 '작업 중 열사병 예방 지침'을 새롭게 발표한 이후, 가톨릭 노동위원회와 함께 120명 이상의 건설 및 청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0% 이상이 충분한 휴식 시간과 냉각 시설 부족으로 인해 열사병 증상이 계속된다고 응답해 정부 지침의 비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열사병 예방 지침을 재고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열 관련 질병 예방) 규정'을 만들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5년 만에 발생한 10호 태풍을 기록하기 위해 팀을 파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재난 예방 정보를 제공했으며 기후 행동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사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투자자의 힘을 활용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자산 관리자가 기후 목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캠페인 지원

2,682,162,162원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하며,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의 기후에너지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후 정책 활동:

-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부가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취하고, 즉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기반의, 사람 중심의 기후 행동 계획 수립을 돕고 지역과 협력하여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그린피스의 지속적인 활동이 동남아시아 여러 도시의 기후 정책에 기여했습니다. 그린피스의 노력으로, 국가 및 지역 정치 지도자, 정부 관계자, 지역사회 대표들이 모여 기후정의에 대해 논의할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 필리핀 살세도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말라본 지역은 그린피스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한 지역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청소년과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기후 활동가를 위한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희생된 6,300명 이상의 생명을 기리기 위해 30일간의 기후 정의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긴급한 기후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 태국에서 대규모 산업 개발 및 화석 연료 확장이 만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년간의 시민 과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후, 주지사가 중앙 정부와 협력하도록 성공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 차나 지역 해양보호구역이 55,352에이커로 확장되었으며, 인접 해역으로의 협력 확대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대기오염 해결:

- 동남아시아를 위협하는 대기오염에 대응해 그린피스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우선시 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아세안 국가들에게 초국경 대기오염 법을 제정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관급 논의에서 표준화된 대기질 지표에 합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태국에서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PM2.5(초미세먼지) 안전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채택된 후, 그린피스는 오염 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법의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민간과 정부 모두가 오염 물질의 배출 및 이동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린피스의 청원에 12,000명 이상이 함께했으며, 그린피스는 지역 환경 단체와 협력하여 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8월, 법원은 그린피스의 손을 들어주어 정부가 60일 이내에 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역 환경 단체 및 30명의 다양한 주민들과 협력하여 도시의 열악한 대기질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무시한 정부를 상대로 시민 소송을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질 개선 조치를 명령했으나, 정부의 조치는 미비했습니다.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여 자카르타의 대기질에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으며 이는 시민들이 거둔 승리입니다.

녹색 에너지 투자

— 베이징 사무소

2,748,452,895원

베이징 사무소는 중국의 국내 및 국제 투자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석탄 발전 확대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며, 청정에너지 기술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 다양한 지역에서 석탄 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새로운 석탄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 미디어 보도와 데이터 공개를 활용했습니다.
- 정책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중국과 유럽 연합 간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목표는 비화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경제적으로 중요한 중국 정부의 녹색 및 저탄소 발전을 추적해 평가했습니다. 국가 기후변화 전략센터 및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의 장애물을 식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 공공 및 민간 재원을 녹색 산업과 저탄소 전환이 필요한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데이터 플랫폼을 런칭하고, 중국의 녹색 금융 정책과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주요 정책 부서 및 금융 산업 전문가와 성공적으로 협력했습니다.
- 중국 기업이 해외 석탄 발전 개발을 멈추고 청정에너지 투자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는 중국 학계와 협력하여 중국의 해외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투자에서의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의 활동 이후,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중국 국영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기업 대상 기후 캠페인

— 베이징 사무소

363,353,131원

중국의 주요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주요 기업의 환경 영향 책임을 묻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회사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책임질 것과 탄소 중립(Net Zero)을 요구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제이디닷컴(JD.com)을 포함한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인 바이아이피숍(Vipshop)은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10,000명 이상의 청원을 통해 테무가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 테크 산업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소비로 전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 이후 바이트댄스는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와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기후 및 에너지 캠페인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1,372,541,026원

중국, 일본, 한국의 자동차 대기업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하도록 압박했습니다.

- 중국의 11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 생산 능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로 중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와 산업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자동차 기업 지리 자동차가 2025년까지 NEV(신에너지 차) 판매 목표를 10% 높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NEV 카테고리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상위 10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탈탄소화 노력을 평가한 두 번째 보고서 <자동차 환경 가이드 2023>을 발표했습니다.
- <거대한 자동차, 더 큰 위기>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등 5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SUV 차량 판매를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로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의 기후 대응 전략에 압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의 정기 주주총회(AGM) 장소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통해 기후 행동에 대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모빌리티 캠페인을 시작하고,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대중교통 인식을 높였습니다.

동아시아 기후 대응

1,286,745,611원

전 세계 기후 및 에너지 캠페인을 강화하고 화석 연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 파키스탄 홍수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영상은 기후위기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 필리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재난에 대응하여,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팀에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했습니다. 내부 자문단 및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팀의 비상 계획을 강화하고 기름 유출 지역과 소통했습니다.
- 예멘 해안의 잠재적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전 세계 대응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린피스의 활동으로 유엔이 주도해 구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 그린피스는 극한 기후 현상을 기후위기와 연결 지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생활, 개발, 정의 및 생태 안전을 포함하도록 확장했습니다.
- 중국의 불고 동굴 유적지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룬 보고서 <사라지는 지점: 문화유산, 기후 변화 및 보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화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문화 보호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넓혔습니다.
- 일본의 소중한 전통문화인 단풍놀이(코요에) 기후위기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시각적 기후 스토리텔링 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문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일본의 계절에 대한 기후 영향을 강조하는 미디어 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후

— 일본 사무소

1,217,360,289원

탄소 배출 제로 캠페인을 지속하여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의 기후행동을 요구했습니다.

- 가와사키 시의회는 도쿄의 선례를 따라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성과는 시민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장관에게 27,000개 이상의 서명을 전달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교실의 단열 시설 설비를 촉구했습니다.
- 그린피스의 캠페인 활동으로 쿤미타치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62%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지방 선거에서 기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후보자들과 기후 문제에 대해 소통하여 환경 정책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외부 예술가 및 큐레이터와 협력해 도쿄 중심부에서 열흘간 전시회를 열고, 기후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알렸습니다.

방사선 보호

353,664,868원

- 우크라이나 원자로 시설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지도의 정기 업데이트를 포함한 글로벌 그린피스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전담팀이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독일에서 핵 모니터링 워크숍을 조직하여 방사선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4년 중반에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가 참여하는 핵 비상 훈련을 계획했습니다.(2024년 중반 개최 예정) 이 훈련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모든 위험에 대비한 대응 계획, 절차, 시스템을 검증하고 강화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석탄,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

— 베이징 사무소

67,294,698원

- 물과 공기 오염 문제의 해결책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국가 기후변화 전략 국제협력 센터(NCSC)와 협력하여 중국 내 다양한 지역의 기후 정책 및 녹색 산업 발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블룸버그와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졌으며, 지방 정부가 녹색 산업 정책을 개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서로 다른 기후 정책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해양 보호

해양 보호

800,185,402원

20년에 걸쳐 전 세계가 힘을 합친 끝에, 2023년 역사적인 글로벌 해양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공해에 글로벌 보호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한다는 최종 목표(30x30)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치 자문, 과학자, 법률 전문가,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리더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회의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최고위급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글로벌 해양조약을 지지할 것을 설득하는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 동아시아지부는 각국 정부와 지자체에 30x30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국민 청원을 통해 한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해양조약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총 14만여 명의 시민들이 글로벌 해양조약을 위한 청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300명의 시민들이 특별 후원을 통해 그린피스 보고서 <30x30:글로벌 해양 조약에서 해양 보호까지> 한국어 판 발간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약을 통해 30x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23년 10월 글로벌 해양 조약에 서명하며 조약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베이징 사무소는 해양보호구역의 개념을 알리고 중국 북부의 귀중한 야생종에 대해 소개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정책안을 제안하여, 그중 일부가 2023년 공식 관리 조치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 타이베이 사무소

1,129,872,230원

대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 대만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해양보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인근 관리 가능한 해역의 30%를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현장 조사 및 조사 보고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을 활용해 해양보호의 긴급성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보고서와 콘텐츠는 리버티 타임스, UDN, 차이나 타임스, TVBS, EBC와 같은 주요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언론 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6월부터 샤오리우치에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해양보호법(OCA) 절차가 가속화되었습니다. 16만 명의 시민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만 원양어업

- 정부와 수산물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대만의 원양 어업이 반복되는 경고와 지속 불가능한 수산물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 어업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공개 포럼을 개최해 EU의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CSDDD)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대만 정부는 2024년 4월 어업 부문을 포함한 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대만 어업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 글로벌

734,806,110원

산림 보호

인도네시아 우림 보호

1,995,440,658원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할 데 없이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이 우림은 기후위기를 조절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지역 원주민들의 권리와 생계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산림 벌채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 공동체의 권익을 지지하고 법적인 규제와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며, 전 세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우림 파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산림 벌채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를 찾아내 폭로했습니다. 조사 보고서 <투명성을 가장하다:인도네시아 팜유 기업의 실소유주 공개>를 발표하고, 기업이 최종 실소유주를 숨기고 규정을 위반하는 현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기업이 저지른 환경 피해와 지역사회의 인권 침해를 강조하고, 정부가 이와 같은 파괴적인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중과 함께 압력을 가했습니다.

총액 2,738,225,297원

산림 및 생물다양성

— 동아시아

742,784,639원

- 지역 원주민들이 산림 벌채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팜유 기업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웨스트 파푸아 원주민들이 법정에서 토지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2023년 9월 팜유 회사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었으며, 2024년 6월 마침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지켜온 토지와 숲, 물과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파괴적인 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기후 회복력, 지역 사회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산림 복원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칩니다.

- 동아시아 지부는 브라질 사무소와 협력해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금 채굴과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원주민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HD현대건설기계의 중장비가 아마존 파괴를 가속하고 있는 현장을 폭로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 결과, HD현대건설기계는 아마존 불법 금 채굴에 동원되는 중장비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브라질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의 꾸준한 과학 조사와 각국 캠페인 팀의 협력으로 국경을 넘어 소중한 숲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베이징 사무소는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중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체계의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더 많은 대중이 산림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강한 산림 복원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 건강한 삶

총액 1,256,426,249원

플라스틱 프리

— 동아시아

949,587,236원

동아시아 지역의 플라스틱 캠페인은 정책 제안, 대중 참여, 공동 연구, 재사용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정책 제안을 활용해 유엔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제 협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 지부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및 홍콩시립대학교와 협업하여 <재사용이 미래다>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부산, 홍콩, 타이베이, 도쿄 등 동아시아 도시의 다양한 재사용 서비스 제공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해 일회용 컵과 재사용 컵 대어 시스템의 전체 과정을 최초로 평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 컵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에서 재사용 컵 대어 시스템이 탄소배출 및 폐기물 감소 측면에서 더 환경친화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해, 재사용 컵 대어 시스템을 장려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서울 사무소는 3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일상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실태를 조사하는 플록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 <플라스틱 코리아 2.0>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워크숍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홍콩 사무소는 타이베이 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언론 투어를 타이베이에서 진행하여 성공적인 정책 및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타이베이와 도쿄 지자체 간의 온라인 공유 세션을 열어 재사용 모델 추진을 위한 지역 간의 경험 교류를 가속화했습니다.
- 수상 경력에 빛나는 애니메이터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서울, 홍콩, 타이베이, 도쿄의 수많은 관객에게 이 주제를 더 친근하게 전달했습니다.
- 일본 사무소는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기 커피숍 체인인 텀리스와 스타벅스의 재사용 식기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재사용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텀리스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타이베이 사무소는 현지 자원재활용법 평가를 위한 정부의 자문 회의에 초대받아 향후 폐기물 감축 정책 수립에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대만 최대 규모의 국제 예술 행사에서 재사용 모델을 대중에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500개가 넘는 일회용 용기를 철약할 수 있었습니다.
- 일본 사무소는 작년 9월 환경성, 정치 지도자, 정부 자문위원, 국제 연구기관,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문 간 협력하는 방법을 논했습니다.
- 동아시아 지부는 유엔 차원에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그린피스의 글로벌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책 분석을 통해 국제적 논의와 정책 수립에 동아시아 지역의 관점과 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글로벌 건강한 삶 프로젝트 지원

306,839,013원

플라스틱 친화적인 문화 탈출

- 그린피스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즉각 금지할 것을 주장하며 각국 정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아세안 국가가 유해 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인 바젤 금지 개정안을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아세안 국가 정부들이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데 앞장서도록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및 제품 생산 대규모 감축, 재사용 포장 및 배달 시스템 혁신 등 전반적인 지역 정책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2023년 6월, 세계 리필의 날을 맞아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는 케손시 정부 및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편의점 리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캠페인에 케손시 6개 구역 1천 곳 이상의 편의점이 동참해, 일회용 봉지를 사용할 때보다 201%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편의점의 수익도 15% 증가해,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식량 안보 확보

-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숲, 안정적인 기후 등 식량 위기가 없는 미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건강한 식습관 캠페인을 펼칩니다.
- 전 세계 해산물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해산물 생산 및 수출 지역인 동남아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전 지구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량 안보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산림 벌채와 환경 파괴에 기여하는 정부의 '식량 자산' 프로그램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교차 캠페인

총액 4,261,637,815원

홍콩 도시 개발

1,179,867,167원

- 2023년, 홍콩 정부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매립 사업인 '란타우 투모로우(란타우의 내일)' 프로젝트에 대한 3개월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전 세계 섬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이 야기할 심각한 환경 및 재정적 위험을 정확히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다양한 시민단체 및 기후, 토지 계획, 금융, 여론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건의 연구 보고서 발표 및 5회의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 대규모 언론 보도를 위한 노력을 통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307건에 달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3천 명 이상의 시민이 홍콩 정부에 매립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그린피스의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 수년간의 지속적인 캠페인 끝에 홍콩 정부는 마침내 2025년 매립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란타우 투모로우 프로젝트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 공동체 이해 관계자 소통 — 베이징 사무소

2,103,016,241원

- 글로벌 환경 연구소와 협력해, 중국의 환경 전문가와 언론인, 문화 종사자들이 대중의 환경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1년 간 진행했습니다.
- 포럼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소통을 통해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했습니다.
- 지역 셀러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및 생물다양성 캠페인에 대한 대중의 큰 관심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협업은 수백만 건의 온라인 조회수와 8천 건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널리 알렸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및 조율

978,754,407원

- 부문 간, 국경 간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그린피스 운영에 참여합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전 세계 지부 및 사무소의 환경 캠페인의 코디네이션을 지원하며, 그린피스의 글로벌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 간의 자원 공유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 그린피스가 주최하는 회의 및 교육에 참석해 다양한 사무소가 더 큰 환경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캠페인 지원

총액 8,248,502,495원

1.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총액 4,961,537,499원

캠페인 /

환경 프로젝트 홍보

1,083,611,082원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도쿄 사무소의 21개 환경 프로젝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29명의 커뮤니케이션 스태프가 다양한 외부 미디어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 미디어와 대중의 문에 대응하고, 미디어 및 오피니언 리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연구 관련 기자 회견을 개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캠페인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환경 이슈 영상 제작,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환경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공유, 교육기관 세미나 참여, 홍보 자료 발간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구축 / 네트워킹

148,886,676원

- 지역 사회와 협력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디지털, 온라인·오프라인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1,646,198,960원

- 환경 캠페인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원자 및 지지자들과 소통했습니다.
- 해양, 산림, 기후위기 등 지역과 글로벌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공동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시장 및 대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목표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 및 육성합니다.

환경 문제 관련 데이터 분석

549,911,003원

- 환경 관련 뉴스 보도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 심층 분석, 여론 동향 해석, 캠페인 메시지 분석 및 개선,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멀티미디어

681,116,335원

- 환경파괴 현장을 찾아가 기록하고, 캠페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그래픽,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린피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환경 정보 홍보

851,813,443원

- 후원자 및 대중에 최신 환경 정보와 캠페인 성과, 서포터즈 활동 등을 알리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작해 웹사이트,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 미디어, 카카오프렌즈 등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 환경 과학 자료를 제작해 기후 비상사태와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2.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총액 703,776,719원

지역 비폭력 직접행동 및 오프라인 시민 참여

323,156,066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 기획 및 실행, 예산 관리 및 법률 평가 등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 설계 및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통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트레이닝 및 장비

158,014,660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도구, 장비 및 안전 장비의 구매, 유지보수 및 개발을 담당합니다.

액션, 자원활동가 관리 및 참고

222,605,993원

- 장비 보관 및 행사용 참고를 운영합니다. (대여비, 관리, 보수)

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총액 2,583,188,277원

지역 조사 및 연구

521,160,078원

- 위성 이미지와 항공 사진을 활용한 조사, 수중 드론 활용 등 첨단 연구 및 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환경 사고와 기상이변을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 환경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을 목격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능력 덕분에 기름 유출, 삼림 벌채, 산업 오염과 같은 사건을 문서화하고 보고하여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 여러 유명 환경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층적인 분석과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공해 입법 및 규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아시아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환경 연구 역량 개발

168,027,790원

- 장소 스카우트,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연구를 위한 정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지식 공유 및 위기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고급 인지과학 적용

1,535,076,006원

- 영향력 있는 환경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인지과학(신경과학, 심리학, 언어학)을 활용해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와 지역사회 파트너를 지원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환경과 관련된 의미 있는 대화와 논의를 더 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TimeToTalk(이야기할 시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사회적 정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대중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AngerMonitor(분노 모니터)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 기후행동네트워크(CAN), 기후 현실, ECF의 신에너지 아카데미 등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 함께 수많은 워크숍 및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과 세션에서는 더 많은 파트너 단체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 더욱 강력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신 인지 과학 기법을 공유했습니다.

자문 - 공공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금융

358,924,403원

- 환경 캠페인과 관련해, 정부 및 유엔의 관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정치계 주요 인사와 연구기관 및 다른 NGO와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 활발하게 금융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발안자로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략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합니다.

그린피스 콘텐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후원자님께 그린피스의 소식을

더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린피스는 후원자님께 새로운 캠페인 소식과 활동 성과는 물론,

최신 환경 이슈나 이벤트 등 다양한 환경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그린피스의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들려주세요.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는

추첨을 통해 10분께 특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 기간: 2024년 9월 30일(월) 까지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